

시베리아 자판기 시장 '무주공산' 발전 잠재력 매우 높으나, 사각 지대에 빠져 있어

KOTRA 제공



자판기 생산업체가 없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자판기 설치가 대중화되고 있어, 향후 최고의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자판기 종류로는 커피자판기와 캔자판기로 95% 이상이 모스크바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스크바의 경우 자판기 설치대수는 유럽의 5%에 불과하며, 자판기 1대당 약 1,600명꼴로 보급이 되어 있는 반면, 유럽은 1대당 평균 134명 꼴로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전망이 매우 밝은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에 의견에 따르면 러시아 자판기 시장 잠재력은 매우 커 향후 5년간 자판기 판매 금액만 연간 1억5000만달러, 자판기를 통한 음료수 판매액은 연간 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에 수입되고 있는 자판기 대수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수입통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볼 때 모스크바에만 약 5000대의 자판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자판기중 30%는 코카콜라가 제공하고, 10%는 네슬레사, 그리고 펍시콜라, TetraPak사 등이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자판기 시장의 확대 여지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자판기 수입통계

HS CODE:847621 냉온음료자판기	한 국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수입금액(천달러)	949,4	694,1	547,1
비율(%)	37.2%	27.2%	21.4%
총 수입금액	2552.9		
HS CODE:847689 화폐교환기를 포함한 기타 자동판매기	이탈리아	캐나다	독일
수입금액(천달러)	120,3	93,1	63,3
비율(%)	36.1%	28%	19%
총 수입금액	332,7		

※ 주) 발표된 통계는 2004년도 1/4분기 기준.

상기 통계에서 보듯이 냉온 음료 제공이 가능한 자판기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전체 수입의 37.2%를 차지하고 있으며,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베리아의 경우에는 보통 시장 유행 및 트렌드가 모스크바보다 2~3년 뒤쳐져 있음을 고려해도, 자판기 시장이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어, 비즈니스 사각 지대에 빠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례로 시베리아 관문이자 러시아 3대 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시(인구 160만)에 설치된 자판기수는 대략 100대로 추정되고 있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사례: 노보시비르스크 국제공항 커피 자판기 3대). 그나마 이마저도 네슬레사가 “켄 커피” 시판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 전개 차원에서 자판기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반적인 자판기 수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시베리아인들은 자판기를 통해 커피를 뽑아 마시는 것에 대해 아주 낯설게 생각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판기를 신기한 기계로 보는 측면이 강한 편이다. 대학이나 상가건물, 쇼핑몰 등에도 자판기를 찾아보기는 사막에서 바늘찾기 만큼 어려운데, 이는 아직 시베리아 비즈니스 맨들이 자판기까지 생각을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기회로 자판기 수입을 통해, 대학 및 상가, 쇼핑몰 등과 협의해 시장 선점 노력을 기울인다면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최고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이다.

하지만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 걸쳐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물 파손/파괴, 도난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다. 파손사고 및 가짜 코인을 이용한 자판기 이용 등이 성행하는 러시아에서는 자판기 사업이 맞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자판기 사업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러시아 경제의 정상화 및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문제 파악 및 해결을 위한 사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금이 아무도 관심없는 시베리아 자판기 시장 선점을 위한 최고의 기회라고 판단된다.